



제54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0일)

전주 동고산성

최홍선 | 111호 통일신라실 | 18:00~18:30

동고산성東固山城은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 25번지 일원에 자리한다. 전주시의 동남방 해발 306m 승암산에서 볼 때 서북 방향이 열린 삼태기 모양의 포곡식 산성으로 남북으로는 날개 모양의 익성이 있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산성의 규모는 둘레 1,712m, 너비는 동서 314m, 남북 256m, 성벽의 높이는 최대 5.88m, 너비 4.8m에 달한다.

성벽은 능선 바깥사면 중턱을 깎아 토루를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석축을 한 편축식의 석성이다. 성 내부는 계단상의 대지가 있으며, 그 곳에는 건물 초석과 기와편들이 산재해 있다. 성문은 북익성 동쪽의 북문, 남익성 부근·동남 돌출부의 양견 등 3개소의 남문, 서쪽 계곡부의 서문, 동쪽의 동문 등 총 6개의 문지가 추정되고 있다. 식수원은 성 중앙부 대지와 동남 돌출부의 서쪽 등 2개소의 우물지가 있다.

1981년 처음으로 개괄조사가 이루어져 전주성全州城명 수막새, 봉황문·쌍무사문 전주성명 암막새가 발굴되어, 그 해에 전라북도 지방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었다. 1990년에는 1차 발굴조사에서 화재로 소실된 정면 22칸 측면 4칸의 주건물지가(길이 84.2m, 너비 14.1m), 1992년에는 2차 발굴조사로 개축된 1-1·1-2건물지가, 1995년에는 3차로 1-3건물지와 북성벽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1991년과 1992년 조사 성과를 토대로 조사자인 전영래 선생은 동고산성을 후백제 왕궁성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2004년 4차 발굴에서 5·7·8·11건물지가, 2007년 5차 발굴에서 북문지가, 2009년 6차 발굴에서 동문지와 남성벽 일부, 2013년 7차 발굴에서 서문지 일부와 2곳의 성벽이, 2014년 7차 추가에서 서문지가 발굴되었다.

1990년대 초반 조사로 후백제 궁성으로 추정되던 동고산성은 이후의 조사를 통해 궁성 또는 왕성이 아닌 후백제 도성의 피난성 역할을 하는 도성의 일부이며, 궁성은 인봉지 일대, 옛 전라감영 일대, 물왕멸 일대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토대로 백제에 의해 초축되었으며 8C 중반이나 9C 후반에 개축되었음이 확인되어 후백제 궁성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평가되고 있다.

제54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0일)

서화의 장황

장연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8:00~18:30

1. 장황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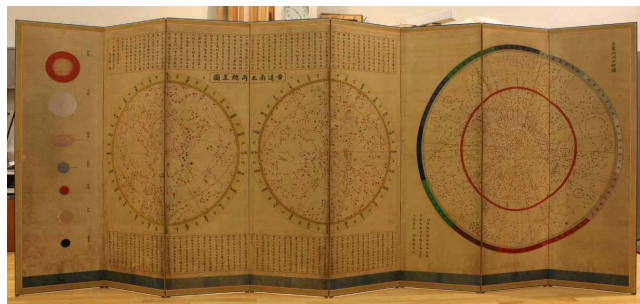
(1) 축장軸裝

- 종류: 족자, 두루마리
- 형식: 축을 사용하여 그림을 마는 형식으로 보관

(2) 정장幀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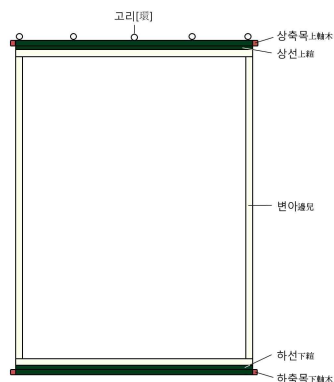
- 종류: 병풍, 액자
- 형식: 나무 속 틀 위에 종이를 여러겹 붙인 후 그림을 접착한 것

(3) 책자장冊子裝 - 절첩, 포배장, 호접장, 포배장, 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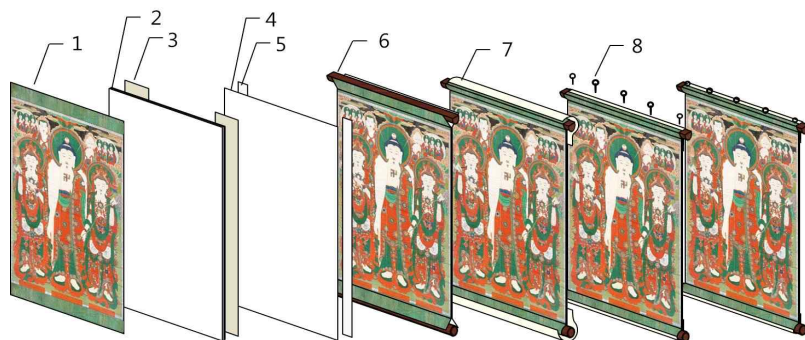


2. 그림장황(옥천사 패불)

그림 장황은 본바탕과 회장부분이 동일한 바탕재질에 그려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불화 장황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림을 그린 후 먹선 및 주선으로 구획하고 회장繪粧을 채색하여 완성한다.



< 패불 회장繪粧의 부분 명칭 >



1. 그림 제작
2. 배접(3~4회 이상)
3. 삼베 부착
4. 마지막 배접
5. 비단배접
6. 상·하축 부착
7. 상·하축 면직물 부착
8. 고리 부착



제54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0일)

누워서 노니는 산수

이기현 | 119호 조선3실 | 19:00~19:30

바람은 잔잔하고 이슬은 깨끗하니 팔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고, 물은 흘러 움직이고 산은 고요하니 북한산은 아름다운 경지이며, 단아하고 온화한 몇몇 친구는 모두 아름다운 선비이다. 이런 아름다운 선비들과 이런 아름다운 경계에 노니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 (중략) ... 답답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번다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다. 고요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고, 적막하여 아름다운 곳이 있다. 어디를 가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누구와 함께 하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이와 같이 많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말한다.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아름답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중흥사유기·총론』, 『(역주)이옥전집』1, 이옥 저, 실사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소명출판, 2001, 297~298쪽.)

이옥李鈺(1760~1815)은 북한산을 유람한 뒤, 계절의 아름다움, 북한산의 아름다움, 함께한 친구의 아름다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의 아름다움 등등 그가 느낀 온갖 즐거움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글을 남겼습니다. 글만 읽어도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절로 떠오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느낀 점을 시나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유람하고자 했지만 교통과 비용 등의 문제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안에서 또는 경치 좋은 정자에서, 홀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유람기를 읽으며 금강산, 백두산 등의 명승지로 상상 속의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이런 글들을 ‘산수유기山水游記’, ‘와유록臥遊錄’이라고 부릅니다. ‘와유록’은 방안에 누워 시문을 읊조리며 유람하듯 감상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쓴 유람기는 탐독의 대상인 동시에 문장 솜씨를 뽑내는 장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주희朱熹가 친구들과 함께 중국 호남성에 있는 남악南嶽을 일주일 동안 유람하면서 주고받은 시와 문장을 모은 『남악창수집南嶽倡酬集』을 산수 유람기의 전범으로 삼았습니다. 이행李荇(1478~1534)은 이들의 산행을 본받아 7일을 기한으로 삼아 『남악창수집』에 실린 50수의 시를 차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산수 유람기를 독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상상 속의 여행을 만드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아름다운 유람기 몇 편을 소개하고, 이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유람을 떠났는지, 여행지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4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10일)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1)

- 선사시대의 석상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사람 모양의 석상은 기원전 4천년기부터 아라비아 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예멘에서 이러한 형태의 석상이 100개 이상 출토되었다. 석상이 발굴된 수백여 개의 유적지는 해안가와 와디 하드라마우트Wadi Hadramawt 사이 지역, 자우프Jawf, 그리고 마립Marib 부근 지역에서 1990년대에 발견되었다. 일부 매장지에서는 인간의 형상이 그려진 돌 상판이 발견되기도 했다. 저부조 低浮彫로 만든 것이지만 형태와 특징 면에서는 고부조 高浮彫 석상과 대단히 유사하다. 눈에 띄는 특징은 단검이 달린 허리띠인데, 이것은 지금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차는 것과 비슷하다. 일부 석상에는 예전에 칠했던 붉은색 염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죽은 사람이나 부장품을 붉은색 황토로 칠하는 것은 신석기시대의 전통이다. 석상, 그리고 무엇보다 부장품에서 발견되는 세세한 장식품들-진주와 조개껍데기로 만든 장신구, 석기, 청동으로 만든 소수의 물건들-은 이 하드라마우트 거석 유적의 연대가 기원전 4천 년에서 1,500년 또는 1,000년 사이임을 알려준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를 이동하는 수렵 채집인들이 일시적으로 정착하면서 만들어 낸 현상의 일부다. 이번에 전시되는 세 개의 석상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이마Tayma와 하일Hail 근방에서 출토된 것이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이 많다. 일단 상체가 모두 직사각형의 네모반듯한 형태이고, 이 중 두 개의 석상은 쇄골 표현과 몸에 비해 작은 팔, 아주 풍부한 표정 등이 특징이다. 무기가 달린 허리띠와 장신구는 몇 개의 선으로 조각하였다. 최소한의 형태에 팔과 얼굴 표정만 섬세하게 표현한 이러한 석상들은 시대를 뛰어 넘어 현대적인 미감을 주기도 한다.



그림1. <사람 모양의 석상>, 하일 인근 출토, 기원전 4천년기, 사암, 57×27×5cm,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 소장